

김현석 전남드래곤즈 신임 감독 “승격 돌풍 일으키겠다”

인창수 수석코치 등 ‘김현석호’ 구성... “수비 안정화 높여 실점 줄일 것”

“일심동체로 염원하는 승격을 이루겠다.” 전남드래곤즈의 승격을 목표로 내세운 ‘김현석호’의 항해가 시작했다.

김현석 감독이 지난 18일 선수단, 코칭·지원스태프, 유소년 지도자, 사무국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POSCO 교육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은 전남 김규홍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장 고태원의 꽃다발 증정, 김현석 감독의 취임 소감 및 각오 발표로 진행됐다.

전남의 제16대 사령탑으로 부임한 김현석 감독은 “목표에 대해서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이 일심동체가 돼 염원하는 승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비 안정화를 통해 실점을 적게 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전남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석 감독은 선수단에 소통, ‘신뢰’, ‘기본’도 강조했다.

현역 시절 울산 소속으로 리그컵 포함 373경기에 출전해 111골, 54도움을 기록한 김현석 감독은 1996년 MVP에 빛나는 K리그 레전드 출신이다.

2003년 은퇴 이후 친정팀 울산에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코치로 활동했으며, 2014년 강릉중앙고 지휘봉을 잡고 지도자 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울산대 감독과 울산현대 유소년 강화 부장을 지낸 김현석 감독은 2022년 충남아산FC의 사무국장을 맡았고, 올 시즌에는 충남아산 사령탑으로 K리그2 준우승을 이끌었다.

지난 9월에는 4승 1무의 성적을 내면서 ‘이달의 감독상’도 차지했다.

김현석 감독은 취임식에서 2025시즌 함께 승격

에 도전할 코칭스태프도 소개했다.

‘김현석호’는 포천시민·서울이랜드·김포에서 활동한 인창수 수석코치를 필두로, 필드코치 송한복, 2군코치 김종영, GK코치 김시훈, 피지컬코치 신용재, 전력분석관 김정현으로 꾸려졌다.

새로운 사령탑으로 새출발하는 전남은 내달 2일 동계훈련에 돌입한다. 15일부터는 태국 방콕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한편 2018시즌 K리그1 최하위로 강등됐던 전남은 올 시즌 승강플레이오프 문턱에서 주저앉으면서 6시즌째 승격에 실패했다.

정규시즌을 4위로 마감한 전남은 5위 부산 아이파크와의 준플레이오프에서 0-0으로 비기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지만, 서울이랜드와의 플레이오프에서 플라카와 윤재석의 연속골을 지키지 못하고 2-2 무승부를 허용하면서 승강플레이오프 티켓을 놓쳤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제 16대 김현석 감독 취임식

일시 : 12월 18일 11:00 장소 : 포스코 교육관



김현석 전남드래곤즈 신임감독(오른쪽)이 18일 취임식에서 주장 고태원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코너킥 다이렉트 골’ 손흥민, 카라바오컵 8강 베스트 11 선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상대로 보기 드문 ‘코너킥 다이렉트 득점’을 따내 팬들을 즐겁게 해준 손흥민(토트넘)이 2024-2025 카라바오컵(리그컵) 8강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카라바오컵을 주관하는 잉글랜드풋볼리그(EFL)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후스커어드컵이 선정한 8강전 베스트 11을 공개했다.

3-5-2 포메이션으로 선정한 베스트 11에서 손흥민은 왼쪽 날개로 뽑혔다.

손흥민은 20일 맨유와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팀이 3-2로 쫓기던 후반 43분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섰고, 손흥민이 투입한 볼은 크게 휘면서 그대로 맨유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손흥민의 득점 이후 1골을 더 실점한 토트넘은 4-3 진담승으로 거뒀고, 손흥민은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2007-2008시즌 리그컵(당시 칼링컵) 우승 이후 17년 만의 챔피언 탈환에 힘을 냈다.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인 도미니 솔라케(평점 9.15), 이브 비수마(평점 7.89), 데얀 쿨루세브스키(평점 7.96점)도 베스트 11의 한 자리씩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지난 20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코너킥 다이렉트 득점’을 기록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테니스 스타’ 고프, 여자 선수 수입 1위

1년에 499억원 벌어들여...상위 10명 중 7명 테니스 선수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단식 세계 랭킹 3위 코코 고프(미국)가 올해 전 세계 여성 스포츠 선수 가운데 최다 수입을 올렸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최근 발표한 올해 전 종목 여자 선수 수입 순위에서 따르면 고프는 올해 3440만 달러(약 499억원)를 벌여 1위를 차지했다.

고프는 이달 초 또 다른 매체 스포티카가 발표한 올해 여자 선수 수입 순위에서도 3040만 달러로 1위에 올랐다.

지난해 포브스의 이 순위에서는 고프가 2위였고, 1위는 이가 시비옹테크(폴란드)였다. WTA 투어 단식 세계 2위 시비옹테크는 올해 순위에서 2380만 달러로 2위로 밀렸다.

올해 포브스와 스포티카 1위를 석권한 고프는 2023년 US오픈 단식 챔피언으로 올해는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 4강까지 올랐다.

3위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구아이링(중국)으로 2210만 달러를 벌었다.

4위부터 공동 6위까지는 테니스 선수들이 자리를 채웠다.

정친원(중국)이 2060만 달러, 아리나 사발렌카(벨라루스)가 1870만 달러로 4, 5위를 차지했고 공동 6위는 나란히 1290만 달러인 오사카 나ومی(일본)와 에마 라두카누(영국)다.

8위는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로 125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9위는 테니스 전 세계 랭킹 1위 비너스 윌리엄스(미국·1210만 달러), 10위는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미국·1120만 달러)로 이어졌다.

상위 10명 중 7명이 테니스 선수일 정도로 테니스 선수들이 상위권을 점령했다.

11위인 테니스 선수 제시카 페쿨라(미국·1020만 달러)까지 11명이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기록했다.

한국계 선수는 페쿨라와 공동 19위인 골프 선수 리디아 고(뉴질랜드·630만 달러)까지 2명이 상위 20위 안에 들었다.

/연합뉴스



광주체중·고,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서 금빛 활약

광주체고 이재혁·박인성 등 금 광주체중 김성수 2관왕 차지

광주체중·고 레슬링 선수단이 22일 충북 제천 실내체육관에서 마무리된 ‘제18회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에서 금빛 활약을 펼쳤다.

광주체고 이재혁(2년)과 광주체중 김성수(3년)는 자유형(이하 F)과 그레코로만형(이하 G) 경기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며 이번 대회 2관왕에 등극했다. 광주체고는 이번 대회에서 총 금 3개, 은 2개, 동 4개를 획득했다.

이재혁은 F97kg 결승에서 박태운(전남체고)에 10-0승, G130kg 결승에서 장준혁(경기 서현고)에 9-1승을 거두며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인성(2년)은 F57kg 결승에서 이혁준(부산 건국고)을 상대로 10-0으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건 뒤, G60kg 동메달까지 더했다.

주민지(1년·여자자유형 WW53kg)와 배지성(1년·F86kg)은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준령(1년)은 G51kg와 F53kg에서, 나도은(2년)은 G



이재혁(왼쪽 세번째)이 제18회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에서 F97kg, G130kg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고 제공>



김성수(가운데)가 제18회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에서 F55kg, G55kg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중제공>

77kg에서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광주체중 선수단은 금 3개, 동 5개를 수확했다.

김성수(3년)는 이번 대회 F55kg결승에서 주성현(제주 온리원레슬링)을 12-0으로 제쳤고, G55kg결승에서 정규진(서울 도곡중)에 9-0으로 승리하며 2관왕에 올랐다.

김수형(2년)은 F80kg 결승에서 황태경(경기 수성중)을 7-6으로 꺾고 정상에 차지했다.

서동유(F60kg, G60kg), 노은찬(이상 3년·F71kg), 양도열(G80kg), 차예주(이상 2년·WW50kg)도 각각 동메달을 더하며 대회를 마쳤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시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파크골프대회 성료

‘2024 광주시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0일 염주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2025년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지역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인 파크골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단 70명을 포함해 운영요원 등 100여명이 참가해 친선경기를 펼쳤다.

종합 타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가려낸 단체전에서 9조(고운동·김철희, 63타)가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8조(강명채·정은중, 63타), 3위는 10조(양유복·박철순, 65타)가 됐다.

한편, 2025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은 내년 9월 22-28일, 2025세계양궁선수권은 앞서 9월 5-12

일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은 ‘2025 세계양궁선수권’과 함께 치러지며, 장애인·비장애인 양궁선수권을 동시 개최하는 도시는 2011년 이탈리아 토리노 대회, 2019년 네덜란드 스텔트호벤스 대회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조양희 개인전

GAC 공모전시 화첩에 무등을 담다

: 조양희 개인전

일시 : 2024-12-6(금) ~ 2024-12-2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